

월요논단



김봉희 전 제주한라대 사회복지학 겸임교수

요즘 아이들이 태블릿을 잘 다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놀랍지 않다. 이제는 초등학교도 아닌 어린 아이들도 스마트 기기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시대다. 하지만 이렇게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오늘날, 과연 우리는 아이들에게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 호주 같은 나라들은 이미 영유아의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명확한 기준 없이 부모와 교사들이 각자 알아서 해법을

디지털 시대, 영유아를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하다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아이들에게 무조건 디지털을 멀리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문제는 '얼마나,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이다. 디지털 기술은 영유아 발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놀이형 디지털 콘텐츠가 아이들의 언어 발달과 창의적 사고를 촉진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아이가 직접 화면을 터치하거나 움직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교육용 애플리케이션은 부모가 활용하기에 적합한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이런 측면에서 디지털 기술은 올바르게 활용된다면 강력한 교육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잘못된 사용은 그 반대에 시달릴 수 있다. 장시간 스마트 기기에 노출된 아이들은 시력 저하와 수면 장애를 겪을 위험이 높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디지털 기술이 놀이와 상호작용을 대체하면서, 아이들의 사회적 발달과 감정 조절 능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가뜰이나 신체 활동 시간이 부족한 현대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기기는 양날의 검과도 같다. 이런 문제에 대해 미국과 호주의 접근 방식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미국소아과학회(AAP)는 단순히 화면을 보는 것보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상호작용형 콘텐츠를 강조한다. 예를 들어, 부모와 함께 디지털 활동을 진행한 후 아이와 대화를 나누는 방식은 기술이 단순한 소비가 아닌 창의적 학습으로 이어지게 한다. 호주는 아이들이 디지털 기기를 창의적 도구로 활용하도록 놀이형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한다. 단순히 정보를 주입하는 대신 아이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디지털 콘텐츠가 넘쳐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기준은 부족하다. 예를 들어, 특정 연령에서 어떤 콘텐츠가 적합한지, 부모와 교사는 어떻게 기술 활용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모호하다. 단순히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실질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 디지털 기술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도구다. 하지만 그것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열쇠가 될 수도, 족쇄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미국, 호주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적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아이들이 기술을 활용해 세상과 더 잘 연결되고, 자신의 가능성을 더 크게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들의 과제가 아닐까.

사설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시급한 해결 과제다

제주지역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앞다시 피 제주는 매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공급과잉 문제가 자주 빚어진다. 이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전력 과잉공급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적잖은 실정이다.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출력제한 건수는 2017년 14회에서 2019년 46회, 2020년 77회, 2023년 117회로 해마다 그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출력제한은 풍력발전이었지만 2021년부터는 태양광에서도 발생하기 시작했다. 출력제한 일수가 늘어날수록 사업자들의 경제적 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다. 2009년 제주도내 발전설비 비중의 9%를 차지하던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2022년 기준으로 19.2%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제주도의 '2035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서도 출력제한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신재생에너지의 출력제한으로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제주도와 한국전력이 출력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 주목된다. 제주도는 지난달 28일 한전과 업무협약을 맺고 제주의 에너지 대전환과 에너지 신사업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안인 출력제한과 전력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또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양방향 충·방전 등 분산에너지 신기술의 조기 사업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을 통해 출력제한 문제 등 에너지 신사업에 시너지 효과를 내길 기대한다.

열린마당

소중한 토양, 미래를 위한 우리의 책임



송유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매년 12월 5일은 UN이 지정한 '세계 토양의 날'이다. 이 날은 토양의 중요성을 알리고 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만들어졌다. 토양은 우리 삶의 터전이자 환경 유지에 꼭 필요한 자원이지만,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토양 오염과 침식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토양 오염의 주요 원인은 폐기물 오염, 과도한 개발로 인한 침식, 농업에서의 과도한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첫째, 일상에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과대포장을 지양하며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매립지로 보내지는 폐기물이 줄수록 토양 오염 위험도 줄어든다. 둘째, 농업에서는 친환경적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과도한 농약 사용을 줄이고, 중성 비료나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토양 보전에 큰 도움이 된다. 이를 통해 농작물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토양 건강도 지킬 수 있다. 셋째, 자투리 땅에 나무와 식물을 심는 것은 작은 실천이지만 큰 변화를 가져온다. 식물은 토양을 정화하고,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며, 토양 유실을 방지한다. 이번 세계 토양의 날을 맞아 모두가 작은 실천을 통해 토양 보전에 나선다면,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함께 지킬 수 있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장애인 문화시설 이용 편의성 높인다”

제주시, 공연장 접근성 조사

○...제주시는 12월 한 달간 지역 내 등록된 공공·민간 공연장 24개소에 대해 장애인 등 접근성 전수 조사를 실시.

이번 조사에서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의해 주 출입구,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문), 계단 또는 승강기, 대·소변기, 세면대, 점자블록, 유도·안내 설비 등을 시설 설치했는지와 정장 작동 여부를 점검.

점검 결과 시설 관리 미흡, 단 순 고장 등 경미한 사항은 행정 지도하고 시설물 철거, 파손, 미 설치 등 사용불가한 경우엔 시정 명령 조치에 나설 예정인데 제주시는 “이 조사를 통해 장애인 등 문화 시설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

드림노트북 단가 절감 제안

○...제주도교육청이 진행 중인 '드림노트북' 사업에 대해, 구매 방법을 변경하면 현재 예산의 절반 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와 눈길.

지난달 29일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강경문 의원은 “제주도교육청의 노트북 구입 기준 단가를 약 180만 원 편성했고, 인천은 약 126만 원을 편성했다”라며 “지난해 계약 기준 노트북 1대 당 가격은 제주 약 156만원(6년 유지보수 포함), 인천시는 약 86만원(유지보수 별도)으로 제시됐다”고 언급.

그러면서 “인천교육청 구매 조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규격·사양, 다수공급자 2단계 계약, 유지관리 사업은 분리해 별도 계약한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제안.

‘1학생 1스포츠’ 프로그램 나비효과 기대

내년 제주 5개 초등학교에서 '1학생 1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이 시범 운영된다. 지난 10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도와 교육청이 스포츠 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 지도와 학생 체력 증진, 비만을 해소하기 위한 '1학생 1스포츠' 운영에 합의함에 따라 내년 시범학교를 운영하게 됐다. 2026년엔 10개 초등학교를 시범 학교로 선정할 예정이며, 학교당 10개 종목 운영할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은 시범학교 운영 계획 발표에 맞춰 아침체육활동 시범학교인 탐라중학교에서 체육활동 참관과 함께 농구 경기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교육청이 올해부터 운영 중인 아침체육활동은 정규수업 시작 전 학교별 특색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활기찬 하루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1학생 1스포츠나, 아침체육활동은 바람직한 교육프로그램이다. 좀 늦었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성장기 아이들의 심신건강에 있어 체육활동은 필수다. 교육청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지금부터 1학생 1스포츠와 아침체육활동을 연착륙시키는데 집중해야 한다.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통해 제주 체육의 발전에도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 팀 창단 등 밀린 숙제가 너무나 많다. 오 지사가 “교육청과 협력해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체육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교육감도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 신체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선언이 아닌 실천이 중요한 시점이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진주강공 승휴(향년 87세)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배우자 이춘자, 아들 강동현, 딸 강민희, 수정, 미선, 효정, 며느리 이순선, 사위 고동균, 김진배, 김진철, 조셉로스

건계분판매
친환경 및 HACCP인증 농장
*발효기(콤포스트)로 열처리 발효시켜 완전 건조된 친환경 계분을 판매합니다.
*펠릿으로도 가능합니다.
- 제주 전지역 배송가능 -
제주초록영농조합법인
문의 : 010-3119-3820, 010-3692-8420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리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본·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설(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 대행
별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개장신고서 무료 작성 대행
장례지도사 강봉호
010-5254-6661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나장 의사
616-08-85402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술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이내 가능합니다.”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하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